

제8회 한·일 어촌어항기술교류회의의 성료

어촌·어항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방향 제시



제8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가 지난 6월 15일 한국어항협회 주최로 일본 대표단 13명을 비롯 어촌 어항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호텔(서울 신길동 소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어촌·어항의 새로운 역할정립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31일 「어촌·어항법」의 제정 공포에 따른 새로운 어촌 어항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양국의 산·학·연 관계자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촌과 어항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상호 교환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회의는 부경대학교 류청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국측에서는 중앙대학교 이홍식교수가 '문화산업과 접목한 어항어촌의 새로운 역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연구위원이 '어촌어항 관광

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일본측에서는 일본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나카무라 타카시 과장보좌가 '어촌정비에 관한 새로운 사업', 어항어장어촌기술연구소 오츠카 코지 실장이 '어항의 새로운 역할·기능과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를 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어촌관광 차이점, 어항내 정화문제, 어촌 및 어항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참석자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본 회의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방어축제 등으로 관광어항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제주도 모슬포항을 시찰했다.

한·일 양 협회는 지난 '97년부터 양국의 어촌어항어장 등 수산 기반 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과 어촌어항인들의 우의를 다지는 목적으로 매년 양국을 오가며 기술 교류회의를 열고 있다.

공 지

제10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

- 응모 자격 : 사진애호가(제한없음)
- 출품 규격 : 11"×14" 컬러사진
- 출품 기간 : 9.26~10.4
- 주 제 : 연안을 중심으로 한 어업활동(내수면 포함)
어촌어항어장 전경
해양문화, 어촌관광 등과 관련된 미발표작
- 자세한 내용 : 한국어항협회 사이트(www.fipa.or.kr)
- 문 의 : 한국어항협회 기술홍보실
(02)3673-2854, syt@fipa.or.kr